

책방음악회...나눔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용봉점에 한달에 한번 '책방음악회'가 열린다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용봉점에 가면 볼볼찾기 하는 기분이 든다. 책장에 가득 꽂힌 책과 음반들을 찬찬히 둘러보면 황제를 할 수도 있다. 얼마전 들렀을 땐 클래식 CD 8장을 8000원에 구입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웃음 1'은 2000원이었다. 책방 한켠에 마련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간다.

지난 2009년 문을 연 헌책방은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 넓찍한 공간을 기부한 이도 있었고, 인테리어를 무료로 해준 이도 있었다. 무엇보다 책을 기부하고, 또 그 책을 구입한 이들이 함께 만들어간 공간이다.

지난해 책방을 이용하고 책을 기부한 이는 7891명, 4만6441권의 도서와 음반이 새생명을 얻었다. 매출은 9800만원이었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전액 기부했다. 지난 한해 헌책방을 비롯해 아름다운 가게 광주전남본부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눈 금액은 모두 2억2200여만원이었다.

헌책방이 한달에 한번 '책방음악회'를 개최한다. 책을 통한 나눔과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간으로서 헌책방의 의미와 역할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최근 독서량이 줄어들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중고서적을 판매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책 기증이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광주 용봉점
피아노 기증·재능 기부로 매달 음악회
내일 첫 선...첼로·가야금 등 무대
헌책과 묘목 교환 통한 식목 행사도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상철 집장이 업라이트 피아노를 기증하고, 많은 이들이 힘을 합쳐 정기적으로 음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6일 오후 4시 열리는 첫 음악회 주제는 '마법같은 나눔! 봄을 노래하다!'다.

김현욱씨가 예술감독과 피아노 연주를 맡은 이번 공연에서는 최민정씨가 가야금 연주 '장산꽃이야기', '아리 진도'를 들려주며 소프라노 주수연씨가 멘델스존의 '노래의 날개 위에',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왈츠'를 선사한다. 또 첼리스트 박효은씨가 생상스의 '백조',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들려주며 이정숙무용단 유수정씨가 부채춤을 선사한다. 또 정인봉씨는 동화구연과 유희리 연주를 들려준다.

특히 봄과 시작이라는 주제에 맞춰 음악회에 함께

하는 예비맘들에게 출산용품(오가닉 베네티저고리 2세트)도 증정할 예정이다.

한편 헌책방은 식목일을 맞아 '책나눔, 나무꺼안기' 캠페인도 진행한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평생(80년) 사용하는 종이 양을 나무로 환산해보면 30년생 나무 237그루정도로 하고 한다. 2초마다 축구장 면적의 원시림이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헌책방은 '광주생명의 숲'과 함께 한 때 나무였고, 숲이었던 책의 수명을 더욱 연장시키고, 함께 초록숲을 가꾸자는 취지로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 책장 속 숨어있는 헌책을 살려 자원 재순환을 도모 헌책기증을 통해 책과 나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행사다.

행사 기간(4월4~9일)에 헌책을 기증하면 식물(꽃) 화분이나 어린 묘목을 증정한다. 학교나 어린이집, 기관 등은 단체로 한꺼번에 기증할 수도 있다.

기증도서는 너무 오래되었거나(2007년 이후에 출간된 도서에 한함), 찢김, 낙서 등 파손이 없어야 하며 문제집, 교과서, 만화책은 기증할 수 없다.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광주 용봉점 신예정씨는 "아이들과 함께 헌책방 나눔이를 통해 책도 구입하고 음악회도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514-897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봄의 마드리갈'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내일 문예회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 윤영문) 제119회 정기연주회 '봄의 마드리갈'이 26일 오후 5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첫 무대는 소년소녀합창단이 맑은 소리로 들려주는 르네상스 음악이다. '주님을 찬양하라', '오 놀라운 탄생의 신비', '우리의 삶 얼마나 즐거운가', '부활하신 예수' 등 1400~1600년대 중세시대 음악을 선사한다.

이어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산 우리강', '즐거운 동요 메들리'를 음악과 안무

에 맞춰 부를 예정이다.

또 '오페라의 유령' OST 모음곡도 선보인다. 'The Phantom Of The Opera', 'Think Of Me', 'Angel Of Music', 'All I Ask Of You' 등 익숙한 음악을 만날 수 있다.

남성 중창단 'S.C.Singers'와 'CNS' 금관 5중주단은 특별출연해 '사운드 오브 뮤직' 연주 등 무대를 함께 꾸밀 계획이다. 입장료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613-8246, 062-415-560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카펠라로 찾아온 봄

국립광주박물관 내일 그룹 'The Present' 콘서트



국립광주박물관이 매화향기 가득한 봄을 맞이해 26일 오후 4시 교육관 대강당에서 '아카펠라로 찾아온 봄'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광주 아카펠라 그룹 'The Present'가 나선다. 현재와 선물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진 'The Present'는 지역을 졸업했고 지난해 크라운해태 자연미술제에서도 나무향아리 작품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문의 061-381-008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파 그룹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엔딩', '몽계구름', '투게더 인 하모니' (Together in harmony)와 개성 넘치는 자작곡들까지 다양한 음악을 아카펠라로 만나볼 수 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6세 이상부터 입장 가능하며 공연 당일 오후 2시 30분부터 300여 명을 선착순으로 무료 입장을 배부할 예정이다. 문의 062-570-702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바람의 숲 그리고 시간의 기억'

'숲에는 초어가 산다'...김도명 개인전 **담양 대담미술관 27일~6월 5일**

항아리에 심어진 나무가 보인다. 가까이서 보니 흙이 아닌 골판지로 만든 항아리다. 종이 항아리는 비바람에 노출된 채 썩어가고 나무 영양분이 된다. 나무로 만들어진 종이 가 썩어 다시 나무로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 생명 순환을 이야기한다.

자연, 소통, 생명 등을 주제로 작품활동을 하는 김도명 작가가 담양 대담미술관에서 27일부터 6월5일까지 개인전 '숲에는 초어(草魚)가 산다'를 개최한다.

'창조는 노동으로부터 온다'는 신념을 가진 김 작가는 골판지·신문지·책 수천장으로 각기 다른 크기 원을 만든다. 한장 한장 겹쳐 항아리나 화분 등을 제작한다. 단순한 형태를 지닌 작품은 인내와 집념, 장시간 작업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다.

이번 전시는 실내·외로 나눠 작품을 선보인다. 갤러리 내부에는 종이 항아리들이 전시된다. 수많은 포장용 골판지로 만들어진 항아리들을 볼 수 있다. 또 갤러리 입구에 심어진 나무에도 항아리를 설치

한다.

외부에서는 영상작품을 선보인다. 초록색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은 인간이기심으로 인해 본 모습을 잃어가는 자연에 대한 그리움과 겸허함이 녹아 있다.

김씨는 국민대학교 미술학부·대학원을 졸업했고 지난해 크라운해태 자연미술제에서도 나무향아리 작품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문의 061-381-008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축 제61회 호남예술제!

더불어 만드는 행복한 세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군산시의회**

어린이 행복동 **군산**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군산시의회